海外動向

日本세멘트輸出現況

＜1963年12月5日字 Far Eastern Economic Review 誌에서 転載＞

日本의 세멘트産業은 国內外의 活潑한 需要로 말미암아 未曾有의 好景気를 누리고 있다。

다가오는 東京올림픽競技로 因하여 国內 세멘트需要는 顯著한 增大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세멘트産業은 建設 및 民間産業으로부터 注文이 殺到하여 前에없이 活気를 띄고있다。

한편 20個의 主要製造業者로부터 構成된 日本세멘트輸出協会에 依하면 1963会計年度（1963年4月～1964年3月）의 日本세멘트輸出은 当年度의 目標인 190萬톤을 훨씬 超過하여 6年만에 처음으로 200萬톤에 到達할 것으로 보인다。

当初 日本의 세멘트輸出은 東南亞諸国이 自国內의 세멘트生産을 始作하므로서 漸次 減少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나 日本세멘트輸出協会의 調査에 依하면 지난 9月中의 세멘트 総輸出은 237,400톤으로서 이는 8月의 実積에 比해 40%의 增加이며 또한 지난 「스에스의 危機」以来 過去 6年間에 걸쳐 最初로 月間 船積이 200,000톤을 凌駕하게 된것이다。

그와같이 하여 当会計年度 上半期（1963.4～9）中의 総세멘트輸出은 1.04百萬톤에 達했으며 同 下半期中의 船積도 運賃率의 上昇과 같은 不利한 要因에도 不拘하고 海外로 부터의 継續되는 조회와 製造業者들의 높은 輸出意欲等에 依해서 899千톤에 到達할 것으로 豫測된다。

9月中 세멘트輸出의 急激한 增加는 主로 韓国에 44,300톤

（8月의 4倍增加）과 싱가폴 33,000톤（50%上昇）의 二大船積에 因한 것이었다。

韓国政府는 当地의 激甚한 세멘트不足을 解決하는 緊急対策으로서 9月부터 세멘트에 対한 輸入関税를 撤廃했으며 한편 싱가폴의 貿易業者들은 当地에서 日本商品을 「뽀이콧트」하려는 感情이 높아가고 있음에 비추어 将次 輸入이 困難할 것이라는 展望아래 9月中 日本으로부터의 세멘트輸入增加를 서둘렀던 것이다。

今年度 下半期에 있어서 日本세멘트輸出을 促進하는 主要要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있다。 即

1。東파키스탄은 9月에 있었던 颱風으로 因하여 이 地域의 復旧를 為한 70萬톤의 세멘트 輸入이 時急을 要하고 있으며

2 여태까지 日本으로부터 세멘트를 輸入한 적이 없었던 西파키스탄은 인다스江流域의 開發을 為하여 5萬~6萬톤의 세멘트輸入을 計劃하고 있고 또한

3。最近에 輸入業務를 認可받은 인도네시아의 民間商事들은 日本으로부터 세멘트 輸入을 願하고 있다（最近까지도 인도네시아는 輸入을 国家機関에서 独占하고 있었다）

日本세멘트輸出協会에 依하면 1962年度（1~12月）에 있어서의 日本세멘트生産高는 28,786,000톤으로서 前年度의24,483,000톤보다 15%의 上昇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日本은 生産高에 있어서 過去 7個年間 180%나 上昇하므로서 1962年에는 쏘련과 美国에 뒤이어 世界 제3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生産面의 增大와 並行하여 日本의 세멘트輸出은 美国行政府의 딸라節約政策에 依한 AID資金市場의 喪失과 共産諸国의 「廉価」攻勢에도 不拘하고 継續 上昇되고 있다。

日本은 現在 세멘트輸出国으로서 世界第1位를 維持하고 있는데 日本세멘트輸出協会에 依하면 앞으로도 세멘트輸出이 지난가을에 보여준것과 같은 빠른速度로 增加된다면 向後 7年間은 그 地位를 繼續 維持한것으로 믿고있다。

日本의 세멘트工業은 1963年度에 세멘트生産施設을 拡張하기 為해서 498億円(日本貨)의 投資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来年의 세멘트需要는 1962年度의 28.21百萬톤에 比해 輸出 190萬톤을 包含해서 31,700,000톤으로 推算하고 있다。